**제7과 승리하신 예수님　2020.3.1**

◎ 찬양 : 찬송가 342장(통일 395장)「너 시험을 당해」

◎ 사도신경

◎ 아이스 브레이킹

자신의 정신과 몸에 해로운 줄 알면서도 끊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혹은 그러한 것을 끊은 경험이 있다면 나눠봅시다.

◎ 말씀 속으로

**주제 말씀**

그 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사십 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주리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아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마태복음 4장 1∼4절).

**말씀 펼치기**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성령에게 이끌리어 광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40일을 금식하신 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성령님은 때때로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시기 위해 우리의 인생길을 광야와 같이 만드십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셨던 것처럼 영적으로 단단히 무장해야 합니다.

Q : 예수님은 성령에게 이끌리어 어디로 가셔서 무엇을 하셨으며 결국에는 무엇을 경험하셨나요?

**물질의 시험**

예수님이 마귀에게 받은 첫 번째 시험은 돌들을 떡덩이가 되도록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마귀는 40일 금식으로 매우 굶주리셨던 예수님께 육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기적을 행하라고 유혹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권능을 육신의 필요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마 4:4).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면 물질의 문제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어쩌면 우리는 물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잠시 신앙생활을 멀리하고 생계에 집중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의 물질을 구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명예의 시험**

마귀는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러고는 예수님에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기적적으로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라고 유혹했습니다(마 4:5∼6). 이는 마귀의 두 번째 시험으로 예수님께 자신의 특별한 능력을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여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권력과 명예를 얻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예수님은 말씀으로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마 4:7).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스라엘과 온 인류의 왕은 비범한 능력과 정치력이 아닌 생명을 드린 희생으로 세워진다는 사실을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권력과 명예에 대한 유혹에 흔들리곤 합니다. 타인보다 높은 자리에 앉고 자신의 이름이 알려져 타인에게 칭송받는 일은 매우 달콤하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권력과 명예를 얻기 위해 힘쓰기보다 비록 낮은 자리에 처할지라도, 누가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희생하고 섬기기를 더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가 희생하고 섬길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천국에서 큰 자로 인정해주실 것입니다.

**우상숭배의 시험**

마귀는 세 번째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지극히 높은 산에 데리고 가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고는 자신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고 예수님께 말했습니다(마 4:8∼9). 이는 예수님이 욕심에 이끌려 우상숭배의 죄를 짓도록 하기 위한 마귀의 유혹이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마귀에게 물러가라 꾸짖으시며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는 말씀으로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마 4:10).

우리 역시 우상숭배의 유혹을 끊임없이 받습니다. 고대 사람들처럼 우상을 섬기지 않을지라도 하나님보다 다른 무언가를 더 사랑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한다면 물질의 우상을, 인기를 더 사랑한다면 인기의 우상을, 권력을 더 사랑한다면 권력의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상숭배의 유혹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처럼 미혹하는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섬기시기 바랍니다. 피조물의 본분을 지켜 하나님만을 높일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형통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Q : 예수님이 마귀에게 받은 시험의 종류는 무엇이었으며, 예수님은 그때마다 어떤 말씀으로 유혹을 물리치셨나요?

**삶 속으로**

1. 물질의 시험은 거액의 돈과 같은 거창한 것만이 아니라 작은 것에서도 올 수 있습니다. 명예의 시험 역시 고위직과 같은 높은 자리뿐 아니라 사소해 보이는 자리 때문에 올 수도 있습니다. 자신에게 다가왔던 물질의 시험 또는 명예의 시험이 있다면 나눠봅시다.

- 김 성도님은 평소 구역 식구들 혹은 믿지 않는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지갑을 잘 열지 않습니다. 그는 이웃에게 밥 한 끼, 차 한잔 대접하는 것이 덕을 세우고 전도에 도움이 되는 일인 줄 알면서도 선뜻 베풀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자주 자책하곤 합니다.

- 이 권사님은 몇 년 전 구역장을 맡지 못했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교구장 목사님이 자신의 능력과 헌신을 알아주지 않은 것 같아 많이 아쉬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 믿으며 순종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이 권사님은 이전에는 구역 식구들을 챙기느라 온전히 집중하지 못했던 예배를 더 잘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역원이 됨으로써 구역원들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다른 종교를 믿지 않더라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우상숭배입니다. 과거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이 있었다면 이야기해봅시다. 혹은 지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지 고민해보시고, 만약 그러한 것이 있다면 나눠봅시다.

- 박 집사님은 몇 년 전 고3 수험생이었던 딸에게 1년 동안은 주일에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좋으니 공부에만 전념하라고 말했습니다. 그해에 딸이 대학에 합격하기는 했으나 박 집사님은 시간이 흐른 뒤 자신이 딸의 대학 합격을 딸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 것보다 더 소중히 여겼다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지금은 딸에게 신앙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고 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단과 기도**

**결단의 고백**

· 썩어 없어질 물질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기로 결단합니다.

· 영원히 잊혀져 버릴 명예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고 희생할 것을 결단합니다.

· 헛된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기로 결단합니다.

**통성기도**　기도 제목을 나누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전도 대상자를 위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의 기도**

성령님, 저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걷게 될지라도, 그 모든 것이 저를 단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임을 믿고 말씀으로 승리하도록 하옵소서. 죄의 유혹이 있을 때마다 이겨낼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꾸준한 말씀 읽기와 기도로 언제나 성령으로 충만하여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주기도문으로 마무리**

**관련 성구**

·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시편 119편 101∼103절)

·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요한일서 2장 16∼17절)